

DAIL

호식이두마리치킨
1,000호점을 축하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지친 여름이었지만, 폭염도 감당치 못 할 후원회원 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오늘도 새 희망과 새 꿈을 간직하며 실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지난 8월 12일, '밥 피스메이커' 운동이 DMZ 평화공원에서 두번째로 열렸습니다. 지난해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시작된 순수 민간운동 '밥 피스메이커'는 남과 북의 갈등과 대립을 핵무기나 사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한마음이 된 민생들이 한 상에서 밥을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바닥에서부터 평화통일을 이뤄가자는 민족화해 운동입니다.

올해 역시 한 마음 한 뜻으로 '밥 피스메이커' 행사에 함께해 준 후원회원분들 덕분에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에서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밥 피스메이커'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운동으로 꾸준히 성장해나갈 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밥 피스메이커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뜨거운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배역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그 배역은 나만 할 수 있는 배역이 되었다!" 언젠가 신문에서 읽었던 배우 오달수씨의 인터뷰입니다. 다일공동체를 사랑하는 후원회원들은 시초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다일공동체 사역을 늘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주신 분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형제, **취** 일드 올림



c.o.v.e.r.s.t.o.r.y

다일공동체의 오랜 동반자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기맹점 1000호점 돌파를 기념하여 다일공동체에
사랑의 쌀 1000포대를 전달합니다.

CONTENTS

02

8일 간의
네팔 의료봉사

06

울랄라세션이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

10

상생기업 호식이
두 마리 치킨,
1000호점 달성 기념
사랑의 쌀 기부

12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보여준
제 8회
다일 아너스데이

14

제 2회 밥 피스메이커,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으로

16

다일의 국내외
현장이야기

31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32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35

품다일

36

신규후원

38

후원 안내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도한, 김은진

사진 | 김도한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6년 9월 발행처 | 다일공동체

주소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신고합니다!

네팔의료봉사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무사 복귀했습니다!



글 | 김 현 자 다일 천사병원 부원장

8월 8일 새벽, 다일공동체 네팔 의료봉사 팀은 네팔에서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네팔도 고온다습한 우기였는데 도착 당시, 한국도 네팔 못지않게 폭 폭 찌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더위였지만, 네팔에서 그 누구보다 뜨겁게 봉사하고 돌아온 의료팀이었기에 그 열정만큼은 한여름 불볕더위를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다일공동체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봉사활동은 다일 천사병원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은혜 감사로 진행되었습니다.

8일 간의 의료봉사 기간 동안 네다일 센터 근처 빈민촌 주민들과 작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신두팔촉의 산골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펼친 봉사팀. 2015년 지진 발생 직후 다일공동체 의료팀에게 살뜰한 보살핌을 받았던 환자들의 입소문으로, 올해 진행된 의료캠프에는 의료캠프 인근지역주민들부터 걸어서 서너 시간 걸리는 이웃마을 주민들까지... 치료가 간절한 많은 분들이 방방곡곡에서 찾아왔습니다.



- ① 네팔 의료봉사팀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 ② 네팔 의료봉사팀 수술 전 준비
- ③ 치료중인 김용덕 원장님

대지진의 여파가 아직까지...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 미어져...

의료캠프 장소는 신두팔촉에 위치한 까브레마라나타 교회였습니다.

작년에 지진으로 붕괴된 이후,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건된 까브레마라나타 교회는 이곳 저곳 발품을 팔며 애쓰신 목사님의 수고와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기간 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행해진 장소에서 이뤄진 봉사라 그런지 이번 의료캠프는 왠지 더 뜻깊고 의미있었습니다.

저희가 살핀 환자들 중에는 지난해 발생한 지진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 해 통증을 호소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 고통이 저희

에게까지 전해지는 듯해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그 중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진으로 발가락을 다쳤지만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 절단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발가락이 심하게 굵아터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여 동안 절뚝거리며 험한 산길을 걷고 또 걸어 이곳 의료캠프까지 찾아 온 남성. 그는 대지진으로 부모님과 두 자녀를 잃기까지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가 감내해야만 했던 아픔이 어느 정도였을는지... 저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환자를 살피고 치료가 이뤄지는 내내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눈물이 자꾸만 솟구쳐 흥이 났습니다.



수업 전 감사기도 드리는 네팔 아이들

1,009명의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본 네팔의료봉사팀

치료 환자 수 1,009명, 진료 건수 1,310건, 수술 건수만도 29건에 달했던 네팔의료봉사. 다일 천사병원 이선영 의무원장님을 단장으로, 광양시 김외과의 김용덕 원장님, 진한나 의사선생님, 다일 천사병원 자원봉사자 이기남 약사님과 오정순 간호사님 부부, 대학생 서가영 전은지, 그리고, 다일공동체 전현직 스태프들로 구성된 13명의 네팔의료봉사팀. 저희는 봉사기간, 모두가 한 마음이 돼 탄탄한 조직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오정순 간호사님의 부군인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님은 다일영성수련회에 참가하시면서 우리와 연을 맺은 분으로 다일공동체 해외 분원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인 분이셨습니다.

출발 전 인천공항에서 모였을 때 “교수님, 저희 의료봉사활동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각오 단단히 하셨지요?” 하며 인사를 건네니 “나도 각 NGO 해외 기관들을 많이 돌아봤어

네팔 의료 봉사



치료환자 수
1,009명



진료 건수
1,310건



수술 건수
29건

요, 저는 그저 밀린 원고나 쓸 생각입니다.” 라고 답하셨던 교수님.

하지만 교수님은 누구보다 호된 봉사를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매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수많은 환자들의 혈압을 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고된 일정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곧 봉사의 참맛을 느끼시곤 너무나 즐거워하시며 이렇게 고백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NGO 기관들을 통해서 해외 빈민촌을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일 공동체의 봉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직접 함께해보니 다른 NGO들보다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누구 하나 소외되는 분 없이 정성껏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공간을 구성한 캠프 내 배치 구도만 봐도 그 동안 쌓인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 다일공동체에서 행한 믿음의 훈련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구성원 그대로 내년에 다시 한번 네팔로 봉사 옵시다!”

은혜로운 교수님의 고백에 저희 역시 내년 의료봉사를 기약하며,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들은 봉사합니다’ 라는 다일 천사병원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해 저희가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일

- ① 진료 후 식사중인 아이들 모습
- ② 진료받기 위해 기다리는 아이들
- ③ 진료 중인 진한나 의사선생님
- ④ 수술 중인 김용덕 원장님





나눔은 사랑의 실천

울랄라세션이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 이야기

6년 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특유의 퍼포먼스와 가창력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가요계에 급부상한 그룹, 울랄라세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아낌없는
후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일아너스데이 행사 중 울랄라세션의 공연 모습

지난 2013년, 정기적 기부활동을 약속한 울랄라세션은 나눔 활동에 앞장서 온 대표 기부 연예인인데요.
4년 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한 그들이 지난 7월 7일, '다일 아너스데이' 행사 무대에 오르며
다일공동체와도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행사 수익금 전액을 다일 복지재단에 기부, 다일공동체를 통해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을 보여준 울랄라세션.
'가슴 속 사랑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눔은 사랑의 실천이다!" 외치는
그들에게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1 지난 7월 7일 다일 아너스데이 행사 무대에 오르며 다일공동체의 뜻깊은 행사에 동참했는데 함께한 소감은 어떠신지요?

김명훈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고요. 가수로서 이 같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또한 고액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해 보니 사회에서 받은 것들을 고스란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주는 고액 기부자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란 사실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희도 가수로서 활동하면서 기부 문화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Q2 다일공동체에 후원금을 기부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사용되었으면 하시나요?

하준석 저희가 기부하는 금액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또 힘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 귀히 쓰였으면 합니다. 다일공동체의 청량리 밥퍼 나눔이 아프리카에까지 전해졌는데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일공동체를 통한 나눔이 많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3 기분뿐 아니라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박승일 먼저 간 저희 팀의 리더, 윤택이 형이 투병생활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투병생활을 하는 기간에 저희가 어떻게든 윤택의 형의 치유를 돕기 위해서 병원에 자주 왔다갔다 했는데요. 당시 자연스레 몸이 불편했던 아이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치료를 원하는지, 그 절실함을 아이들에게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까지도 눈에 들어오고 아이들의 가슴 아픈 부분들이 계속 보여 지고 그러니 마음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Q4 쌀 화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 활동을 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최도원 쌀 화환은 팬분들의 생각으로 진행이 됐던 나눔입니다. 그룹 자체 혹은 각 멤버들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팬 분들이 꽃대신 쌀 화환을 보내 주는데요. 이 쌀 화환은 행사가 끝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팬 분들 덕에 주는 사람도 전달하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Q5 울랄라세션이 생각하는 나눔은 뭔가요?

김명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눔이란 사랑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이 정말 가득하신 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랑을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그리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통해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눔은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엄청난 고액의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쏟아 나눔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작은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조금씩 그런 일들을 늘리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품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을 우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을 통해 나눔의 즐거움을 함께 느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인터뷰는 다일공동체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dailcommunity>



Q6 앞으로의 나눔 활동 계획이 있다면요?

김명환 우선은 가수니까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고스란히 저희 가까운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게 저희들의 가장 중점적인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부 형태 콘서트로 월드비전, 다일공동체를 통한 나눔을 좀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니 여러분도 늘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dail**

울랄라세션이 다일공동체의 밥퍼와 꿈퍼를 응원합니다



MOSIGI 다일공동체의 오랜 동반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

창립 17여 년 만에 1,000호점 오픈 래거 이뤘...

지난 8월 18일 두마리치킨의 원조 호식이두마리치킨(회장 최호식)이 1,000호점 오픈을 기념하여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에서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 치킨을 제공하는 창조적 가격파괴 마케팅으로 1999년 치킨업계 신드롬을 일으키며
등장, 17여 년 간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다일공동체와의 인연은 3년 전...

2013년 가맹점 700호 돌파를 기념하여 '사랑의 쌀' 700포를 밥퍼나눔운동본부에 기증하면서 다일공동체와 인연을
맺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이후, 800호점 돌파 때는 쌀 800포를, 900호점 돌파 때는 900포의 쌀을 기증하며 다일
공동체를 통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사랑의 쌀 전달식



이날 행사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1000호점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원천은 고객과 가맹점주는 물론 이웃과 함께한 상생경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경영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한 최호식 회장.

기념식에 이어 최회장은 전 임직원과 함께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밥퍼나눔 배식에 참여, 진정한 상생을 몸소 실천해보였습니다.

이 외에 2013년 송년회 행사, 2014년 밥퍼 700만 그릇 돌파 행사, 2015년 어버이날 행사 및 다일의 날 행사, 최근 DMZ에서 개최된 밥 피스메이커 행사 등 다일 공동체 내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행사에 동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다일공동체를 통한 나눔 활동을 시작으로… 이제는 상생경영의 대표주자!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브랜드로서 불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매년 100개 이상의 가맹점이 늘어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이처럼 우리사회에 본이되는 사업체로서 상생경영을 늘 잊지 않고, 나눔 문화 풍토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다일공동체 베트남 분원과 자매결연을 체결, 후원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상생경영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도약,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해나갈수 있길 소망합니다. **dail**



- ① 밥퍼나눔운동본부 미당에 쌓아둔 사랑의쌀 1000포대
- ② 사랑나눔봉사중인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들
- ③ 사랑나눔 봉사 중인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과 다일공동체 최일도 이사장



다일아너스출범식



“다일, 그대의 자랑이듯이 그대, 다일의 기쁨이여라!”

꾸준한 나눔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성공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

지난 7월 7일 청량리에서 개최된 다일 아너스데이

7월 7일 7시, 사회 사회지도층의 나눔과 섬김의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200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는 다일공동체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행사 올해로 8회를 맞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행사가 지난 7월 7일 청량리 롯데백화점 문화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일공동체의 고객 후원회원들을 깊이 예우하고자 기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다일 아너스데이'로 행사명을 정정하고, '아너스 공식 출범식을 갖는 등 아너스 회원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다일 아너스데이 행사에 깜짝 방문한 왕조선!

산악인 엄홍길, 전 야구선수 박찬호, 해민 스님 외 50인의 다일 후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 8회 다일 아너스데이, 첫 번째 식순, '신규 아너스 회원 추대식'은 영상을 통해 20여 년 간 다일과 함께한 박상원 홍보대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1억 원 이상 후원한 기부자로서 신규 아너스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박상원 씨를 축하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박상원 홍보대사의 아너스 회원 등재를 축하하고, 7년간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준 그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먼 중국 땅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소녀, 왕조선..

조선이는 중국 다일 어린이집 출신으로 박상원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다일 어린이집 최초로 의과 대학에 진학한 다일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박상원 홍보대사와 왕조선 양



- ① 다일 아너스 출범식 중 핸드 프린팅 순서
- ② 아너스데이 행사장 내부
- ③ 15인의 뮤지컬 갈라팀 MUT 공연 모습

생각지도 못 한 조선이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던 박상원 홍보대사. 그는 '아름다운 나눔의 열매'가 되어 돌아와 준 조선이가 그저 고맙고, 기특하다며 한동안 말이 꼭 품에 안아주었고, 그 모습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후 통 큰 나눔을 보여준 12인의 아너스 회원들을 예우하고자 '아너스 출범식'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아너스패 전달식' 및 '핸드 프린팅' 순서로 진행된 출범식. 출범식을 통해 다일공동체는 고액 후원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행사에 활력을 더해준 다일 아너스데이 공연팀

'신규 아너스 추대식', '아너스 출범식', '결과보고 영상 상영' 등 순서만 놓고 본다면 다소 딱딱할 수도 있었던 다일 아너스데이 행사. 하지만 처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행사에 활력을 더해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공연팀입니다.

행사 오프닝과 클로징 무대를 담당한 15명의 뮤지컬 갈라팀 'MUT'와 황홀한 재즈 연주를 선보인 3인의 재즈 연주가 '이지호 트리오'. 관객들과 하나 되어 호흡한 '하재용 마술사', 신나는 댄스로 행사에 흥을 돋아준 '울랄라세션'의 무대는 식순 곳곳에 녹아들어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고, '다일 아너스데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청량리, 라면 한 그릇으로 그칠 수 있었던 나눔을 '밥퍼'로 '뽕퍼'로 '꿈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그 뒤를 받쳐준 다일의 소중한 고액 후원자, 다일 아너스 회원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아너스 회원들을 시작으로 사회 지도자층의 품격 있는 나눔이 다일공동체를 넘어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려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dail**



- ① 남북 간 화해를 물꼬를 뜨기 위한 화해의 밥상
- ② 슬로건을 외치는 공동대표, 기획위원들



제 2 회 밥 피 스 메 이 커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으로

지난 8월 12일
DMZ에서 개최된
밥 피스메이커

지난 8월 12일, 광복절을 앞두고 DMZ 내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제 2회 밥 피스메이커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밥 피스메이커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순수 민간 주도의 평화통일운동으로 남북이 밥부터 나누며 화해의 물꼬를 터 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학계, 종교계, 정치계를 망라한 각계각층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한 제 2회 밥 피스메이커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란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 날 행사에서 5인의 공동대표들은 남북이 70년 간 묵혀둔 갈등을 밥상 앞에서, 밥부터 나누며 천천히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는 바람과 함께 평화통일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자 남북한 병사들과 군 통수권자들이 한 밥상에 마주 앉아 밥을 나눔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밥을 먹게 될 그날까지 밥 피스메이커 행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남북한 병사들이 한 밥상에서 둘러앉아
밥을 나눌 그날을 고대하며...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



- ③ 밥 피스메이커 참가자들의 화해의 밥상 나눔
- ④ 슬로건을 외치는 참가자들과 김연수 다일공동체 상임대표
- ⑤ 밥 피스메이커 행사 슬로건을 외치는 사람들
- ⑥ 밥 피스메이커 행사 중 해마루 공연단의 특별공연



평화통일을 향한 공동대표들의 굳은 의지를 담은 축사와 선언문 낭독 후 이어진 특별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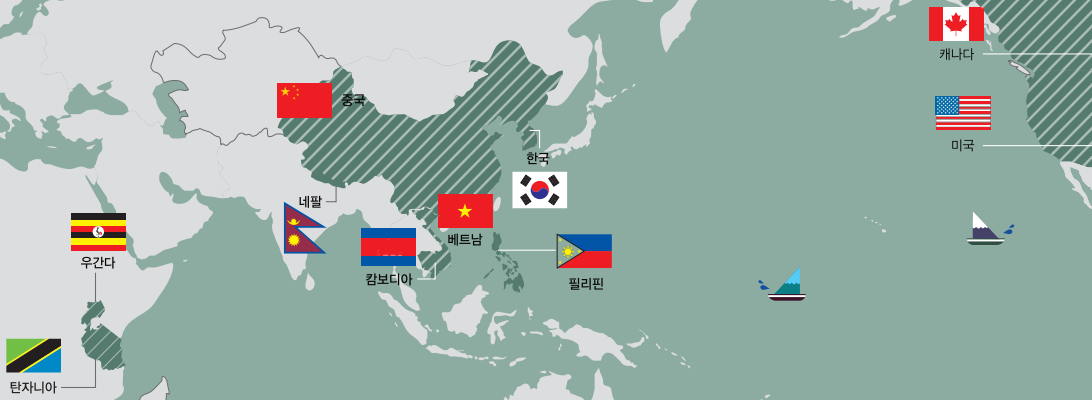
신명나는 잔치 한 마당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해마루 공연단의 신명나는 공연은 진중한 분위기 가운데 이어진 행사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평화공원 내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고, 모두가 함께 사물놀이패

의 장단에 맞춰 멋진 춤사위를 뽐냈던 잔치 한마당! 평화통일을 향한 개개인의 미세한 몸짓이었지만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여름 태양의 열기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이어 펼쳐진 '화해의 밥상 나눔 퍼포먼스'와 '생쌀이 릴레이 퍼포먼스(생명의 쌀 이어가기 운동)'로 행사는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밥 피스메이커들이 준비한 밥과 반찬, 각종 과일과 떡, '한촌설렁탕'에서 후원해 주신 설렁탕과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서 직접 나와 튀겨주신 치킨까지...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남북한 병사들과 대표들을 위한 화해의 밥상이 차려졌고, 행사 참여자 모두 한 밥상에 둘러 앉아 음식을 나누는 '밥상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 대형 쌀독에 쌀을 붓는 '생쌀이 릴레이 퍼포먼스'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 누구랄 것도 없이 400여 명의 참석자 모두 언젠가 남북이 하나 되어 이 자리를 메울 날을 고대하며 연이은 퍼포먼스에 하나된 마음으로 동참해 주었습니다.

행사 장소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었던 만큼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40도에 가까운 폭염 속에서 진행되어야 했던 점 등 행사를 진행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된 제 2회 밥 피스메이커 행사.

하루속히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뤄 이곳 비무장 지대가 남북한 동포의 만남의 장소이자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밥 피스메이커 행사를 시작으로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누며 통일을 향해 한걸음씩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DaIL**



현 · 장 · 이 · 야 · 기

네팔 NEPAL



최홍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네팔에 온기를 전한 의료캠프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네팔 다일공동체는 아산 재단의 지원으로 네팔의 최대 빈민촌과 최대 지진 피해지역인 신두팔촉에서 의료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서 캠프를 진행할 때는 평상시 진료 받기가 어려운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두세 시간을 걸어온 분들은 보통이었고, 진료를 받고 난 후에 "오늘은 못 가요, 너무 멀어서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합

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하루 종일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곳에서 온 분들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왔을까?' 이곳을 찾은 분들은 돈이 없기에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좋은 한국 약을 받을 수 있고 또 네팔에서는 잘 해주지 않는 간단한 수술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기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살피드렸습니다.

한 남자분은 배 아래쪽 방광 위에 커다란 혹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불편하고 또 부끄러웠을 텐데 이번 의료캠프에서 진행한 수술로 혹을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이 수술은 네팔에서는 잘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상상도 못 할 비용이 드는 것이어서 엄두조차 내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은 혹 제거 후,

방광에 혹이 난 모습



혹 제거 수술 모습



매우 고마워하며 의료진에게 연신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진행된 의료캠프는 네다섯 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다딩에서 온 분들, 7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포카리에서 온 분들 등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크고 작은 진료를 받았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무료 진료이기 때문에 찾은 이유도 있지만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을 먼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을 6일 동안 지켜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의료캠프였습니다.

2014년 지진 발생 후, 곧바로 지진현장에서 두 번의 의료캠프를 진행하였고, 2015년에도 두 번 의료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를 열 때마다 한결같이 내년에도 또 와달라며 눈물 어린 호소를 하던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 역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의료캠프를 통해서 3년째 따뜻한 온기를 느낀 사람들은 이번 의료캠프 때에도 이 같은 사랑의 온기를 또 다시 느끼고 싶으며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진다면 '다시 꼭 와달라'는 부탁을 거듭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의사 3명, 약사 1명, 간호사 4명을 비롯해서 통역, 접수, 약조제,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사람까지 총 25명이 팀이 되어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이번 의료 캠프,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의료캠프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dail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네 팔 : 977-98038-00670,

977-98494-58330

한 국 : 02-2212-8004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57448

예 금 주: 다일공동체



네팔 다일공동체 | +977-98494-58330

아산 의료봉사팀



필리핀

PHILLIPHINE



한성희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새로운 그릇이 왔어요

배식 그릇이 오래되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고 음식물로 인해 변색되어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상욱님께서 300개의 배식그릇과 50개의 접시를 선뜻 후원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밥그릇에 밥을 먹으니 밥맛이 더욱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4H 해외봉사팀 여러분

4H 해외 봉사팀에서 필리핀 다일공동체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비록 엄청난 비로 인해 준비한 야외용 게임은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내에서도 가능한 팔씨름과 닭싸움 등 한국 전통놀이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봉사팀은 놀이팀과 밥퍼팀으로 나눠 섬겨주셨는데 밥퍼 팀은 토요일 빵퍼 날임에도 불구하고 손수 밥을 준비하여 배식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풍성한 포크아도보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데 풍성하게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유치원 뉴트리션데이

생야채를 거의 먹지 않는 필리핀에는 '영양의 달'을 정하고 '날'을 정하여 풍성한 행사를 하는데 그 날이 바로 '뉴트리션데이'입니다.

다일유치원에서도 뉴트리션데이를 맞아 갖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눈 가리고 야채이름 말하기, 네 가지 이상 생야채를 넣어 자기가 만드는 샌드위치 먹기, 야채과자 따먹기 등 놀이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채 값이 고기 값보



- ① 4H 해외봉사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아이들
- ② 4H 해외봉사팀의 배식 봉사
- ③ 후원받은 새 그릇에 담긴 음식





- ① 뉴트리션데이를 맞아 율동을 선보인 아이들
- ② 뉴트리션데이를 맞아 준비한 각종 채소들
- ③ 잔레이네 가족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63-927-560-7346

+63-91-6430-6937

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 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만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루뿐이더라도 평소에는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야채들을 보고 맛보며 이름도 배워보았던 소중한 시간! 뉴트리션데이를 맞아 다일 유치원에서 마련한 행사는 유치원 친구들이 준비한 신나는 율동을 끝으로 행복한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칼슘이 부족해요

며칠 보이지 않는 잔 레이를 만나러 잔 레이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잔 레이는 혼자서 일어서지조차 못 할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우리는 잔 레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찰 후 의사 선생님이 내린 병명은 영양실조! 그 중 칼슘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잔 레이와 같은 아동들이 70%가 넘습니다. 비타민, 칼슘과 같은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들이 다일 밥퍼센터에서 먹는 한 끼로는 다 채워지지 않기에 영양부족으로 오는 피부병과 각종 질병들이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영양이 넘쳐나 비만을 걱정하는 나라와 영양 결핍으로 픽픽 쓰러지는 아이들이 공존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고개를 들어 다른 곳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dail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산청간디학교의 방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산청간디학교 학생들이 방문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상남도 산청에서 이곳 캄보디아 씨엠랩까지 먼 길 발걸음 해 준 학생들. 청랑리에 있는 밥퍼에서 봉사를 해본 친구가 '캄보디아에도 밥퍼가 있으니 봉사를 해보는 게 어떨냐'고 제안을 하게 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학생들은 이곳, 캄보디아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갔습니다.

밥퍼 봉사를 시작으로 다일공동체에서의 첫 일정을 시작한 학생들. 밥퍼에서 학생들은 재료 손질부터 음식을 나르고, 식판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밥 먹는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는 등 모든 굿은일을 말없이 묵묵히 해주었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밥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자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푼 학생들은 식사 준비를 마친 후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어꾼쁘레야 예수(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며 소중한 밥을 나누었습니다.

빵퍼에서는 너무 멀어 밥퍼까지 올 수 없는 아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학생들이 직접 영양 가득한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한 학생들은 비록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식사 이후, 학생들은, 잠시 숨을 돌리고 유치원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유치원의 환경은 한국보다 열악합니다. 일단 반이 연령별로 나뉘어있지 않다는 점과 한국의 누리과정 같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이 세밀하게 이뤄지

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도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교구들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간디학교의 학생들은 이곳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먼저 4그룹으로 나누어서, 동적인 활동, 과학 및 신체활동, 정적인 활동, 미술 및 조작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언니 오빠들과 뽀로로 퍼즐을 맞추기도 하고, 예쁜 색종이로 비행기 접기도 한 아이들... 마음이 즐거웠는지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샘물다일유치원 오 후반 아이들은 황재한 날입니다.

밖에서도 활동은 이어졌습니다.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이 전부였던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과학놀이 교구! 하늘로 높이 던지면 파르르 내려오는 잠자리 놀잇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은 신기하고 재미났는지,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놀잇감을 던지며 놀았습니다. 한쪽 옆에서는 색색깔의 긴 풍선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는데, 만들어준 풍선칼을 들고 입으로 붕붕 소리를 내는 품이 여간 멋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놀이가 끝난 뒤 준비해온 작은 선물과 빵도 나누었습니다.

이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떨어지지 않는 아쉬운 발걸음을 땀 학생들.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로 주고 싶어 온 이 학생들의 마음에도 선물 같은 캄보디아의 아이들의 미소가, 행복한 표정이 가슴 깊이 남기를 기도하며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DAJL**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855-12-808-861



① 신체놀이 시범 ② 퍼즐 ③ 밥퍼봉사 ④ 쓰록부엌 아이 ⑤ 재건동산교회밥퍼봉사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밥퍼에서 꿈퍼로

어느 분원이나 마찬가지지만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2012년 밥퍼(무상급식)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의 선교사님들조차 너무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28년 전 청량리 바닥에서 시작한 밥퍼의 첫 정신, 바닥정신으로 탄자니아에서도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기적적으로 탄자니아에 밥퍼센터를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립된 밥퍼 센터를 통해 쿤두치 빈민촌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밥뿐 아니라 대안학교인 호프클래스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꿈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밥퍼에서 꿈퍼로' 이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밥퍼를 넘어 꿈퍼를 실천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밥퍼센터에서 진행되는 호프클래스는

공간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1년에 최대 40명까지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더 많은 아이들의 꿈퍼를 위해 다일비전센터를 짓기로 하고 몇몇 분들의 정성스런 후원금으로 먼저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제5차 비전트립을 통해 '탄자니아 다일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20만불 모금운동'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비전센터는 교실, 교무실,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숙직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빈민촌 아이들은 공립학교조차 다니는 것이 부담되어 집에서 놀거나 집안일을 돕습니다. 이 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며 희망을 심어주는 호프클래스는 현재 밥퍼센터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수업을 진행할 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아이들이 독서를 하거나 자습을 할 장소도 마땅찮아 이제 막 배움의 길로 접어든 쿤두치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꿈을 키워나갈 탄자니아 다일비전센터가 순조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 다일비전센터 부지



행상하는 쿤두치 여성



쿤두치 채석장 사람들에게 희망을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 사람들은 대부분 돌을 깨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루 종일 돌을 깨봤자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2불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돈이라도 있으면 한 가족이 한 끼니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돌을 깨는 손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깎 돌이 없어 그마저도 벌지 못 해 배를 굶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이 없는 홀어머니 가정들은 더욱 많이 캄캄합니다. 남편이라도 있으면 멀리 타지에라도 내보내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텐데 아이들 때문에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 깨는 것 외에는 마을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변변한 방법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센터를 찾아와 채소나 과일, 생선, 슬리퍼 등을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마을을 돌며 판매하거나 길거리에서 꼬치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호소

하는 어머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결연으로 자녀들의 교육비와 병원비, 그리고 어느 정도 물품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4~5식구가 살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이 없고 셋집에 사는 가정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월세를 못내 쫓겨나는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에게는 우선 3개월의 월세를 내주고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보통 1가구당 50불 정도면 이런 소규모의 행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이나 파출부도 자리가 없어서 갓난아이를 데리고 행상에 나설수밖에 없는 가난한 쿤두치 어머니들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AJL**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255-755-154-246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왕조선의 한국 방문

연변대학 의대에 다니고 있는 왕조선 학생이 지난 7월 7일 서울 청량리에서 열린 '다일 아너스데이' 행사에 초청이 되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신규 아너스 회원으로 추대 받은 박상원 홍보대사를 깜짝 방문,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행사 참여 후 며칠 간 서울에 머물렀던 조선이는 서울 다일공동체 직원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 의미 있고 유익한,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이를 위해 해준 진심 어린 조언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이 새겨진 듯 무뚝뚝한 성격의 조선이가 돌아와서는 수다쟁이가 돼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서울에서 조선이를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주었구나'하는 생각에 조선이와 함께해준 많은 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조선이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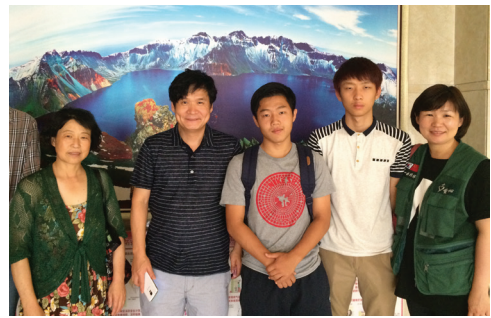
한국 방문한 조선이, 박상원 홍보대사님과 함께

박교진 집사님, 박중휘 군과의 세 번째 만남

3년째, 매년 여름방학이면 오시는 손님이 계십니다. 멀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시는 박교진, 박중휘 부자이십니다.

여름방학이면 매년 훈춘으로 와서 열흘 정도 아이들과 함께 놀고 공부하며 지내는 중휘군은 이제는 훈춘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3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휘 군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올여름 역시, 달려와 주었습니다. 일정 중에 여행이나 외식 한번 없이 아이들과 늘 함께하는 모습이 고맙고 미안하고 또 기특합니다.

중휘 군과 함께 매년 훈춘 다일공동체에 봉사를 오시는 중휘 군의 아버지 박교진 집사님은 중다일 왕조선의 대학 학비 후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만남이 계속되어 더욱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길 바랍니다.



중다일 방문한 박교진, 박중휘 부자

여름방학을 맞아 방문한 방천

올여름방학은 훈춘 지역의 재능기부 봉사자분들 덕분에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기부 봉사자들의 초대로 천연비누공예, 전통 떡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평상시 접하기 어려웠던 서점도 방문해 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여름 방학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방학에는 '글로벌 삼성 꿈장학사업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훈춘 시내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방천에 다녀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서로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삼국 접경지역, 방천! 저희는 삼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진귀한 광경을 살피고자 아이들과 함께 방천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전망대에 올라 3국을 동시에 바라보



방천 방문 기념 단체사진

며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다가 문득 든 생각.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바라보고 있을까? 다일 어린이 집에서 보살피고 있는 8명의 조선족 아이들에게는 바로 저기 강 건너 저쪽이 엄마의 나라인데... 엄마가 있는 곳을 손에 잡힐 듯 바로 눈앞에 두고도 만나지는 못 하는 심정은 어떨는지...' 저는 해맑은 아이들 앞에서 눈치 없이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연신 셔터만 눌러댔습니다.

새 식구가 왔어요!

송철이는 북한이탈주민 엄마와 조선족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족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다른 조선족 분과 재가를 하였으나 주변의 신고로 어머니가 복송되자 새아버지는 송철이를 멀리 장춘의 길림성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은 데다 체계적 교육도 받지 못해 조선족이지만 조선족 언어를 알아듣기만할 뿐 말은 할 줄 몰랐으며 그렇다고 한어(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던 송철이. 그곳에서 송철이는 결국 언어소통의 문제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이에 다시 훈춘으로 보내져서 훈춘 시민 정국을 통해 다일 어린이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식구가 된 송철이는 매우 안전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입니다. 성향은 매우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

에 대한 배려가 깊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송철이를 좋아합니다. 송철이는 자동차 정비에 관심이 많아 현재 훈춘 직업고 중 자동차과에 입학 신청을 하였고 9월 입학할 희망하고 있습니다. 송철이가 직업 기술 고등학교에 손조롭게 진학,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송철이의 손을 잡아주실 결연자를 기다립니다.

“복송된 엄마에 대한 그림움을 가슴 한 켠에 늘 간직하며 사는 송철이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DAIL**



최송철(16세, 남, 조선족)

 중국 다일공통체 | +86-433-753-8004

우간다 Uganda



김혜경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우다일 비전센터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일 텐데요, 이곳 우간다는 한국보다는 따뜻하지만 나름 겨울이라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합니다.

우다일의 비전은 밥퍼를 통한 아동 급식 사역과 꿈퍼를 통한 교육 장학 사역입니다. 이에 2016년 8월 현재까지 서른 두 명의 어린이가 일대일 아동결연을 맺어 학비와 교복을 지원받고 있고, 옥수수가루나 식용유 등의 물품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밥퍼와 꿈퍼를 통한 더 큰 비전을 이루고자 비전센터 건립이 절실했던 우간다 다일공동체는 우간다 입성 만 2년이 되는 바로 올 8월, 드디어 비전센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기에 너무나 안정맞춤인 장소라 생각했기에 이곳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 쓰며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나 빨리 응답을 해주셔서 좋으신 주님께 더욱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우다일 비전센터는 화덕이 4개 있는 부엌과 방 10개로 구성된 집 한 채와 야외 밥퍼 식당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비

전센터는 이전에는 게스트하우스와 식당을 운영하던 집입니다. 야외식당은 밥퍼 사역을 하기에 좋고 방 10개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고아들을 위한 그룹홈 활동을 하기에 정말 안정맞춤입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갖추어졌으니 시설물들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주방물품과 그룹홈 시설 등 구입해야 할 물품들을 안내합니다. 밥퍼용 주방용품으로는 의자 200개, 냉장고 하나, 식탁 15개가 필요하고, 그룹홈 시설물로는 걸상 10개, 책장 10개, 옷장 10개, 모기장, 신발장, 청소도구, 세면도구 등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모든 물품들을 완벽하게 구입하려면 10,000불 정도가 추산이 되어서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더니 현재까지 약 3,000불 정도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십시일반 100불을 후원해 주실 천사 70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아를 위한 그룹홈이 예쁘게 단장되면 후원천사님들은 언제든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며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요. 우간다 다일공동체의 개척 멤버가 되어 주실 100불 후원천사님 70분 어디 계시나요? 선착순 마감하겠습니다. 번쩍 손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우간다 다일공동체입니다! **dail**

 우간다 다일공동체 | +256-77107-2382

결연아동 후원물품 전달 후 단체사진

물품 후원하실 천사를 기다리는 우간다 밥퍼센터



미주 U.S.A



김고운 미주 다일공동체 원장

숨은 천사를 소개합니다.

미주 다일공동체의 오랜 후원자 이신 유재인(생명나무)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재인 후원자님 내외는 수년 전 미주 영성수련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이후 미주 다일공동체의 오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현재 다일의 해외 선교 사역을 돕는 것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유재인님은 수년 전 하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가족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 내시고 현재 한인 식당 주방장으로서 늘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2달에 한번씩 쉬는 날이면 정기적으로 미주 다일공동체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후원금을 전해 주고 가시는 유지인 후원자님. 후원금과 함께 늘 따뜻한 미소로 미주 다일공동체 가족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니 방문해 주실 때 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늘 마음이 울컥하곤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쉬는 날이라며 미주 다일공동체 오피스를 방문해 주신 후원자님. 오늘은 감사한 마음에 그간의 선행을 알리고자 간단한 인터뷰와 촬영을 권했는데 유재인 후원자님은 쑥스러우시라며 재차 거절하셨습니다. 손사래 치며 피하시는 그 겸손한 모습에 보는 이들이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일의 해외 사역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시면 언제나 힘들게 모은 쌈짓돈을 선뜻 챙겨 들고 와 전해주시는 유재인 후원자님. 유재인 후원자님을 보면 다일공동체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후원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유재인 후원자님과 함께

유재인 후원자님을 비롯, 미주 다일 사역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미주 각지의 숨은 천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후원자 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DAIL**

 **미주 다일공동체** | +1-770-813-0899

밥퍼 나눔운동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고세인 밥퍼 나눔운동본부 부본부장

7월 9일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습에

감동한 밥퍼

짙뚱 같았던 여름날, '밥퍼 나눔운동본부'에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님을 포함한 행사부 직원 분들과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정월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분들이 봉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신 차관님은 OT 전부터 앉아계셨지만 밥퍼 스태프들은 차관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관님이 언제쯤 오시는지 물었는데 그 물음을 듣고 옆에서 수줍게 "접니다." 하며 손을 들던 분이 계셨으니, 바로 차관님이셨습니다. 청바지에 티를 입고 오신, 캐주얼한 복장의 차관님. 생각지도 못한 그 모습에 아무도 차관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차관님 죄송합니다."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시종일관 겸손한 모습으로 봉사에 임하신 차관님. 직책을 벗어 던지고, 솔선수범해 봉사에 열중하시는 차관님의 모습에 밥퍼 스태프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차관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통하여 어르신들을 돕는 다양한 봉사에도 참여하자"고 직원들을 향해 말씀해주시기

도 하였는데, 이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희 스태프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중앙회' 정월자 회장님께서도 국내 토종NGO 단체인 다일공동체 밥퍼가 28년 이상을 너무도 귀하게 사역해 오셨다며 더 많은 서울 지역 회원님들이 봉사에 동참하시겠다고 뜻을 모았으니 봉사자가 부족하거나 일손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 오시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7월 27일 중복을 맞이하여 삼계탕



중복날 맛있게 삼계탕 드시는 어르신들

중복을 맞이하여 밥퍼 나눔운동본부에서는 한바탕 삼계탕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한촌설령탕에서 후원 해주신 500마리의 닭과 44명의 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맛있는 삼계탕을 배부르게 드실 수 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시원한 수박까지 싹싹 비운신 어르신들의 식판을 보니 저희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오늘이 복날인지도 모르셨다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밥퍼에 와서 뜻하지 않게 원기를 회복하고 간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을



생명의 쌀 이야기기 운동 함께하는 김성렬 차관님

잡아드리며 복날마다 챙겨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잘 섬기겠노라 약속드렸습니다. 뒤에서 수고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마음도 든든해질 수 있었던 복날이었습니다.

7월 30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약속하는 돌잔치

변종범, 손상화 부부의 셋째 아들 현수의 돌잔치가 밥퍼 나눔운동본부에서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은수와 둘째 아들 지수에 이어 셋째 아들인 현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생을 명받아 지구별에 태어난 날을 맞이하는 생일 날, 현수의 부모님은 밥퍼에서 봉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수 돌잔치

아이의 어머니인 손상화님은 첫째 은수의 돌잔치가 다가올 즈음, 하루 종일 힘만 들고 낭비도 심한 요즘 돌잔치의 추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돌잔치를 하고 싶어 고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인 변종범님이 봉사 제안을 했고, 좋은 생각이다 여겨 부부가 함께 봉사 돌잔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봉사 돌잔치를 지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이들 부부! 변종화님과 손상화님은 이에 둘째

지수의 돌잔치도 밥퍼에서 봉사를 하며 보내게 되었고, 이번에 셋째 현수의 돌잔치 역시 밥퍼에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상화님은 이웃들이 아이들의 돌잔치를 봉사하며 기념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다며 이웃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 손상화님은 현수가 마지막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정도는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한 돌잔치를 해보고도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변종범님이 다른 기념일들도 많으니 막내 현수의 돌잔치도 큰 아이들처럼 밥퍼에서 봉사를 하며 뜻깊게 보냄으로 세 아이 모두 나눔과 섬김의 아이로 키워보자 하셔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봉사에 임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현수의 돌잔치는 부부뿐 아니라 타 봉사자들도 함께 봉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봉사하던 초등학교 강사진, 이현서라는 친구들은 저희를 놀라게 한 봉사자입니다. 어린 나이의기에 무더위 속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텐데 부부의 모습이 너무 감동 되고 좋았으며 어머니, 아버지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자고 먼저 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용돈을 어머니께 반납하는 대신 어머니 통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하게 해달라고 하여 후원신청서를 쓰기도 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의 첫 번째 생일, 7월 30일! 섬김의 아이로 키우려는 부모님의 선행이 주변의 이웃들과 봉사자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모두에게 축복된 하루였습니다. **DaIL**

 밥퍼나눔운동본부 |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DAIL ANGEL'S HOSPITAL 다일 작은천국 DAIL LITTLE HEAVEN



임정순 다일 작은천국 원장

죽음을 앞두고 병상 세례를 받으신 유기열 님

2015년 12월 9일 입소하신 유기열 님은 사업실패 후 2013년 이혼, 그 후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빚 독촉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집을 나와 여관,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모아 놓은 돈마저 다 떨어지자 노숙인 시설인 영등포 희망지원센터를 거쳐 보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유기열 님. 그렇게 보현의 집에서 생활하시던 유기열 님은 2015년 10월, 오른쪽 볼의 종괴로 비강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후 요양을 위해 이곳 다일 작은천국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입소자 유기열 님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입안이 헐고 부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이 힘들어하셨으나 힘든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항상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던 유기열 님. 항암치료로 유기열 님은 현재 오른쪽 눈 밑에 2cm가량 누공이 생겨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태로, 담당 주치의는 현재 보존치료 외에는 달리 해드릴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라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유기열 님은 다일 작

은천국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기 원하셨기에 다일작은천국 원장 임정순(목사) 외 직원 2명은 심방을 가 유기열 님의 지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세례를 해주었습니다. 유기열 님이 주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웃음으로 만들어가는 다일 작은천국


다일 작은천국 입소 어르신들 중에는 매주 오후 2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일작은천국의 경우, 입소어르신들 대부분이 중증 암환자이기 때문에 밖으로는 잘 못 나가시고, 생활관 내에서 TV를 시청하시는 등 무료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웃음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웃음과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섬기는 이들 또한 덩달아 은혜가 됩니다. 노숙인이란 낙인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시던 어르신들은 다일 작은천국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변화됨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어르신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천국의 기쁨이요 섬김의 원동력입니다.

다일 작은천국 어르신들,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dail

웃음프로그램 참여중인 어르신들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 02-2213-8004**

>>>

만약 내가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 양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I . a m . a . h a p p y . v o l u n t e e r

밥퍼 나눔운동본부



행정자치부 행복드림 봉사단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님과 직원 분들이 밥퍼로 봉사를 오셨습니다. 차관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통해 어르신들을 돕고 봉사에 참여하자고 말씀하셨고 겸손한 마음과 행동으로 저희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밥퍼에서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방학중학교 학생들이 |

방학중학교 학생들이 밥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도 밝은 웃음 잃지 않고 봉사를 해주신 중학생 여러분들을 보니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외환카드 봉사동아리 '더불어' |

외환카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더불어'에서 밥퍼로 봉사를 오셨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며 다음에도 또 찾아오신다고 약속해주셨고, 실시간으로 후원금을 모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다일공동체



훈춘시 제 6 중학교 2-1 학생들이 |

방학이면 훈춘 시내의 학생 봉사팀들이 중국 다일공동체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중 훈춘시 제 6 중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은 조를 나누어 매번 방학이면 이곳을 찾아 봉사를 합니다. 이번에 방문한 2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인 김밥 재료를 준비해 주방 봉사활동을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다일공동체



신지은님 |

신지은님은 작년 네팔 지진 피해 후원 모금을 시작한 시점부터 벌써 2년째 미주 다일공동체를 매달 방문해 해외 분원선교 편지 발송과 후원자 우편물 발송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아주 고맙고 귀한 봉사자 분이십니다. 적은 인원으로 미주 분원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손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때로는 어린 자녀들까지도 함께 데리고 나와 부족한 일손을 채워 주시고, 저희를 위해 맛있는 간식도 챙겨 와 주시며 늘 미주 다일공동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 주시는 신지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신지은님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팔 다일공동체



윤계수님 |

지난 5월부터 네팔에서 아름답고 향기 나는 섬김을 보여주고 있는 자원봉사자, 윤계수 님. 미국에서 살고 계신 윤계수 님은 관광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5개월 동안 네팔에 머물면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가난하고 척박한 이곳에 오셔서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센터에 나와 밥퍼 준비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윤계수 님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 즉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먼저 나서 도맡는 봉사자입니다. 때로는 목공예 소질이 있다고 하시면서 망가진 식탁과 의자도 직접 수리해주시고, 평소 가기 힘든 좋은 식당에 네팔 스텝들을 직접 초대해 좋은 교제의 장을 마련해주시기도 하는 윤계수 봉사자. 윤계수 님은 네팔 다일공동체 내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9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남은 기간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계수 님처럼 단기, 장기 자원봉사자로 네팔 다일공동체를 섬기길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최미란, 류흥진 집사님 |

KOICA 단원으로 방글라데시에 파견되어 2년 동안 한국어 선생님이로 활동하신 최미란 선생님께서 부군 되시는 류흥진 집사님과 함께 베트남 밥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KOICA 단원으로서 맡겨진 임무를 잘 마무리하고 남편과 함께 또 한번의 나눔을 실천해주신 최미란 선생님. "언제,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주저 없이 달려가시는 최미란 선생님과 류흥진 집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롯데리아 글로벌 원정대 6기 |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원정대 6기 대원들이 밥퍼를 찾아주었습니다. (주)롯데리아 베트남 법인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참여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인 '밥퍼' 활동에 동참한 6기 대원들은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밥뿐 아니라 따뜻한 사랑도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외에 2억 동(한화 약천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기부해 주시기도 한 (주)롯데리아 기업. 덕분에 풍성한 먹거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롯데리아 기업과 참여해준 글로벌 원정대 6기 대원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S.B.S(미국)/ KIS제주 국제학교 |

미국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최중현 군과 한지오 군이 캄다일에서 밥퍼와 빵퍼 봉사는 물론, 캄다일 중년단 아이들에게 영어 찬양을 가르쳐 주고, 아이들과 함께 영어찬양 특송을 부르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현 군은 아동결연 중인 아동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지오 군은 앞으로 결연할 아동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뻐보였습니다. KIS제주국제학교에서 8명의 학생들이 밥퍼와 빵퍼 봉사활동과 함께 다일나무배조선포소에서 배에 페인트를 칠하고, 쌀 나누기 및 가정방문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로 캄다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청소년시절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브깜띠 |

대사협 단원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활동하였던 김도현 형제가 다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찾았습니다. 7년 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봉사 후 '러브깜띠'를 조직하여 캄다일을 매년 자원으로 오고 있는 김도현 형제, 도현 형제는 오랜만에 캄다일을 다시 찾아 와 봉사하였고 태권도복, 탁구채와 탁구공, 축구공 등 캄다일 방과후 학교를 위해 필요한 물품도 '러브깜띠' 이름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늘 지원 을 아끼지 않는 도현 형제와 '러브깜띠'가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로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해천대학교는 이전에도 캄다일을 방문하 여 봉사활동을 해준 고마운 학교입니다. 교명이 바뀐 뒤 다시 찾아준 해천 대학교 교수님과 학생들. 다 시금 가족같은 교수님과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잊지 않으시고 봉사자의 손길을 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통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옛 충주대학교)가 캄다일을 재방문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학생들은 과거 몇 차례 캄다일 방문 후, 언제부터인가 해외봉사활동의 필수 코스로 여겨 언제나 잊지 않고, 해외를 나갈 때면 캄다일을 꼭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식사 준비와 청소뿐 아니라 아이들과도 최선을 다해 놀아주던 학생과 교직원분들. 자신들과 재밌게 놀아주는 대학생 형 누나들 덕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 나질 않았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 거듭되는 방문, 매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전주 상산고 조용범 학생 |

중학교 내내 밥퍼 봉사를 하면서 다일공동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전주 상산고 조용범 학생은 고등 학교 진학 후부터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다일천사병 원&다일작은천국에서 꾸준히 봉사 중입니다. 기숙학교의 특성상 서울에 자주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서 울 집에 머무르는 주말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조용범 학생. 용범 학생은 앞으로 도 봉사활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학생은 봉사 를 통해 다일공동체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매달 용돈을 모아 '만원의 행복' 후원자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조용범 학생과 같은 학생이 있어 이 세상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경희고 학생팀 |

매번 정기적으로 다일작은천국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또 다른 학생팀은 바로 경희고 학생팀입니다. 이 학생들의 장점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참여도, 그리고 협동심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 먼저 다가가 '괜찮으세요?'라고 기본 좋은 안부를 건네는 학생들. 굶은일도 주 저 않고 뭐든 힘을 합해 다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희고 학생들이 봉사하는 곳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다일작은천국을 위해 즐겁게 봉사해주시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향 상 감사합니다. 다음번 봉사활동에서도 또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대부고 단체팀 |

동대부고 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은 이번에 처음으로 다일작은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늘 열정과 행복이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섬겨준 학생들과 선생님. 동대부고 단 체팀은 어르신 돌보기 외에도 다일 천사병원 구석구석, 반짝반짝 광을 내 닦아주는 등 곳은 청소도 도 맡아 해주었습니다. 무엇이든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해내는 그 모습이 정말 든든했던 동대부고 단체 팀. 청소 후 뒷정리도 어찌나 말끔하게 해놓았는지, 청소도구함을 열어보면 언제 누가 와 청소를 했는 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길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언제나 눈에 반짝반짝 빛이 나던 학생 들. 그 모습 다음에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밥퍼에서 꿈퍼로”

한 생명을
꿈다일
꿈다일

네 꿈은 뭐니?

우리는 이 질문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저 슬픔에 찬 눈망울뿐인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내 꿈이 무엇인지조차 모른채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입니다.

손도 작고 키도 작지만, 하는 일은 어른과 같습니다.
꿈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어린이들에게 꿈은 현재의 삶에서 그나마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밥퍼센터로 오는 것’ 일지도 모릅니다.

다일은 이 어린이들에게 진짜 꿈을 갖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를 품는 기쁨을 당신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생명을 품는 일,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균형잡힌 영양식, 의료 혜택, 위생용품
생필품, 교육과 학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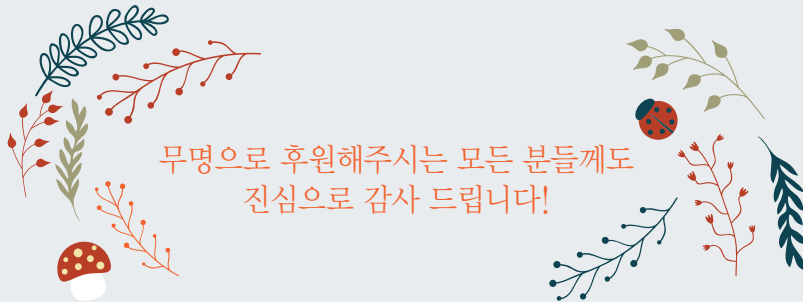
마태복음 13장 31~32절



1:1 International Child Sponsorship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p>신규후원회원 16. 06.16~16. 08.15</p>	<p>(주)시사일본어학원(강남), (주)효성, Be-plus(황선경), JUNG JUDY JOOHEE, 강남동산교회 5여전도회, 강다현, 강찬희, 고도향, 고명환, 고문섭, 고인원, 고화영, 고희숙, 공민욱, 권금숙과남편, 권무정, 김금남(박청심), 김기경, 김나윤, 김단비, 김민경, 김민정, 김민주, 김병덕, 김보경, 김복자, 김봉재, 김서영, 김석태, 김선숙, 김성수, 김수경, 김시안, 김여정, 김연화, 김영석, 김영철, 김옥희, 김완규, 김용석, 김원규, 김유미, 김은님, 김을희, 김인숙, 김일심, 김정훈, 김종학, 김주용(성지초), 김준, 김지혜, 김지희, 김찬순, 김태훈, 김태희, 김향희, 김혜원, 남금조, 다은 어린이집, 도수인, 동현영, 류미정, 류우현, 류재선, 문현숙(예원주원), 박경대, 박경순, 박성권, 박성숙, 박영자, 박장림, 박정하, 박진호, 박태순, 박하나, 박현주, 박형숙, 박형안, 박효숙, 박희숙, 배지은, 백동렬, 백동천, 백선화, 백수자, 백호현, 반동제일교회, 사서연, 서울숲교회, 석계치과(최보윤), 선미숙, 소망교회 철야팀, 손승현, 손원영, 송경주, 송나진, 순천대학교 사회봉사단, 순천승산교회, 신동규, 신석훈, 신용인, 신점숙, 심현수, 아름다운연합교회중고등부,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이림유치원, 안두순, 안선경, 안정애, 안중선, 안혜선, 양경자, 양슬기, 양연숙, 양이슬, 어베인뮤직(주), 엄홍길, 오상준, 오창석, 오정원(울리교회), 오창석, 외환카드'더불어', 우남용, 우성용, 원향상, 원호연, 유경채, 유선영, 이강은, 이고은, 이금숙, 이기쁨, 이동환, 이명중, 이명희, 이브자리천사회, 이상래, 이상용, 이서영, 이선희, 이성민, 이소영, 이수민, 이순연, 이승민, 이승신, 이승철, 이신자, 이연준, 이영찬, 이영호, 이예지, 이완기, 이용철, 이유민, 이윤목, 이재용, 이정연, 이정우, 이정희, 이종진, 이주천, 이준희, 이지은, 이찬진, 이철기, 이청우, 이치훈, 이태호, 이호림, 이효구, 이희아, 임난식, 임보라, 임영우, 임완선, 임춘희, 임혜리, 장광진, 장미라, 장미옥, 장유리, 장혜걸, 전용민, 전은지, 전인순, 정경희, 정대복, 정동아, 정병희, 정선교, 정성진, 정월자, 정유선, 정지혜, 정지훈, 정진환, 정한욱, 정해용, 조규선, 조동희, 조선희, 조숙희, 조영준, 조예슬, 조은영, 조재관, 조재운, 조정우, 조태만, 조현지, 조혜영, 종리교회, 차장민, 차재성, 창원남산교회 교사회, 천수옥, 최경희, 최길자, 최미화, 최민, 최서연, 최신명, 최아람, 최철용, 최태석, 최효진, 추주연, 표종민, 하지수, 학사장교4맥봉사단, 한덕민, 한사랑교회, 한연주, 한요섭, 한은비, 한지오, 한현경, 홍기선, 홍사혁, 홍상길, 홍상택, 홍성순, 홍순임, 홍영신, 홍은익, 홍익교회(손철구), 홍진철, 황성규</p>
<p>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16. 06.16~16. 08.15</p>	<p>후원물품 / 조야약국 이기남님(약봉투,어린이비타민), 조원식님(치과습식석전기), 네오메디팜(해열,진통제,영양제등), 영일제약(항생제,해열,진통,제산제)</p>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캄보디아 다일공동체 16. 06.16~16. 08.15</p>	<p>후원금 / 강남청소년수련관, 강주현, 곽아준, 국제기아봉사단, 국제대학교, 김규원/규민/의찬 가족, 김명진, 김영례, 단국대학교, 당진제일교회, 러브깜띠, 명성교회, 모자이크교회, 목포경동교회, 밀양시민교회, 박서한/서윤/서진, 반도한 선교사님팀, 박준수, 산청 간디중학교, 서울 광희문교회, 손창욱, 신일중·고등학교, 안산꿈의교회 청년부, 안양주일교회, 위덕대학교, 이경주, 이정아, 재건동산교회, 전남교육청, 조연행, 초량교회, 최송희, 최혜진, 충북도립대학교, 평화로운교회, 한경민, 한국교통대학교, 한마음교회, 함께하는교회, 화랑 10기</p> <p>후원물품 / 구미대학교(학용품, 옷, 신발, 장난감, 미용용품), 국제대학교(옷), 김도현(간식), 김성현(학용품), 김영례 가족(학용품, 옷), 당진제일교회(옷, 잡화), 대구과학기술대(학용품), 러브깜띠(스푸츠 용품, 옷), 모자이크교회(학용품, 옷, 의약품), 방문객(학용품, 사탕), 비전교회(학용품, 간식, 선미자(옷), 송경순(옷), 이정애(옷), 재건동산교회(비타민, 잡화, 간식), 전남교육청(학용품, 옷, 잡화), 충북영동교육청(학용품), 톤레삼 카누(쌀), 한경민(학용품),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학용품, 옷, 잡화)</p>
<p>중국 다일공동체 16. 06.16~16. 08.15</p>	<p>후원금 / 김성재(Obey & Praise), 농장경로원, 다일졸업생 모임 정기후원, 류앤, 민경식(북경), 박교진, 오옥수, 최연진, 허순덕, 훈춘시 제2유치원</p> <p>후원물품 / 권윤경(망고4B 외), 림예화+한원철(아동 간식, 각종채소), 무지개 애심협회(전통떡케익 활동지원, 치즈 떡볶이 30봉투), 박금란(비누공예 활동지원), 애심찰떡(떡), 한나(쌀7가마, 우유, 식용유 외), 훈춘 마마팀(과일5B), 훈춘시 제6중 2-1 외 학생 봉사팀</p>
<p>베트남 다일공동체 16. 06.16~16. 08.15</p>	<p>후원금 / A PLUS, DAEWOO INTERNATIONAL, LOTTERIA, NAHAL, POSCO VIETNAM, THANH CONG, VEGAS, 고갑순대표(닥터카), 기업은행, 김경중원장(U.E.C학원), Mr. KIM, Mrs. PARK, 대장금, 모금함,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신덕현님,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유현정님, 참조은광성교회, 최준혁님(대.청.밥), 호치민중앙교회, 호치민한인여성회</p> <p>후원물품 / Cafe de Bakery(빵), POSCO ICT(쌀, 바나나), THANH CONG(바나나, 쌀, 밥퍼얏치마, 티셔츠, 비타민), VEGAS(조미료, 우유), 무명(신발), LOTTERIA(voucher), 방기랑(사탕),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바나나, 김, 초코파이, 쌀), 양선욱, 허정은 집사님(김밥, 잡채), 통큰소(훈제통닭)</p>
<p>필리핀 다일공동체 16. 06.16~16. 08.15</p>	<p>후원금 / 4-H해외봉사팀, 김용만님, 신원선+성실+온유, 필다일스팀</p> <p>후원물품 / 무명(의사놀이), 박성민목사님부부(150,000상당의 영양쌀), 뷰티플마인드(쌀1,000kg), 안상욱님(배식볼)</p>
<p>네팔 다일공동체 16. 06.16~16. 08.15</p>	<p>후원금 / Royal servants, 강남대학교, 강화에덴교회 청년부, 권대동 가족, 김영진, 김현자, 남연옥, 류호열&정명혜, 민길순, 박혜란, 부산영락교회 청년부, 불이학교, 아산복지재단, 요셉비전스쿨, 윤계수, 이순기, 조경민</p> <p>후원물품 / 헤란(의류), 윤계수(나무 및 센터 식탁), 이기남(비타민), 조경민(캔디류, 크레용, 볼펜세트)</p>
<p>탄자니아 다일공동체 16. 06.16~16. 08.15</p>	<p>후원금 / 김애경, 김주용, 문권성, 박성주, 배임순, 백주훈, 윤석화, 이미선, 이해명, 최재영</p> <p>후원물품 / 이해명(중고냉장고 1대)</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며 양육할 수 있습니다.

생쌀이 운동 (Rice Pot Relay)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과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 위하여 쌀을 릴레이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공동체)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 334040926776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 13542
Inst. No : 004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국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공동체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번지
Tel.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Plots No. 192 at Jangwani Beach, Kinondoni Munioipality,
Dar_es_salaam city Tanzania
Tel. +255-755-154-246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1-416-824-4831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만원의 행복 일대일아동결연 기타
월 1만원 _____구좌 월 3만원 _____명 월 _____원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다일레거시10(유산기부) 기타 _____원

재능기부

영문 통/번역(한(-)영) 디자인/영상 기타 _____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연락처 _____ SMS수신동의 이메일 _____ Email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수신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공동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아름다운 세상찾기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4박 5일)

176기/ 9월 13일 ~ 9월 17일

177기/ 10월 11일 ~ 10월 15일

178기/ 12월 27일 ~ 12월 31일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 031 585 2004
010 2720 5145
홈페이지 : www.dail.org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 10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 류주형 형제 010 2720 5145

네비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밥퍼에서는 매 주일 오전 8시에 셔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천사의 날 기념 나눔콘서트

응답하라 1992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노래!

대한민국 대표 뮤지션들의 재능기부 나눔콘서트를 통해
탄자니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2016. 10. 04(화) 7:30PM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본 콘서트의 모든 수익금은 아프리카 최빈민국 탄자니아 아이들의
의료지원 및 보건위생증진, 기초교육을 위한 비전센터 건립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티켓판매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다일공동체 검색)

콘서트 스폰서(후원) 및 티켓구입 문의
다일공동체 02 2212 8004

dai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